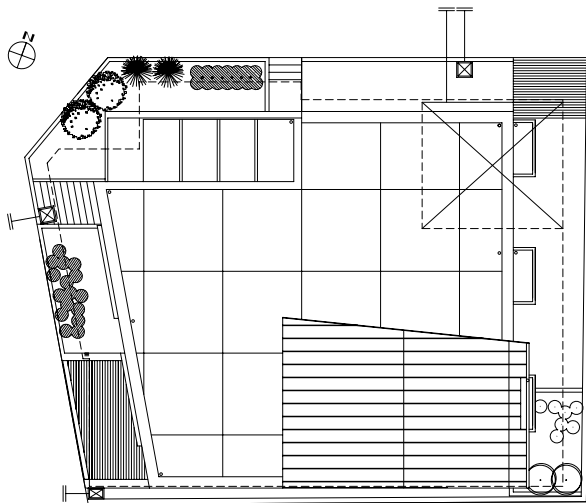


## 삼성동 iSOD 빌딩

iSOD Building, Samsung-dong

● 배치도

● 건축개요



대지위치	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8번지
지역지구	일반주거지역
용도	근린생활시설, 다세대주택
대지면적	340,60㎡
건축면적	200,60㎡
연면적	1,225,49㎡
건폐율	58,90%
용적률	289,74%
규모	지상 6층, 지하 1층
구조	철근콘크리트
내부마감	화강석물갈기, 스테인레스스틸
외부마감	베이스패널, 외단열시스템, 적삼목, 복층유리
설계담당	차성민, 이창률, 배준성, 안경란
사진	건축사사무소 제공

수년전부터 지속되어 온 일반주거지역내의 다가구, 다세대 주택의 정점에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대지가 위치한 삼성동 일대이다. 대부분의 경우 최대한의 용적률과 최소의 비용으로 오로지 높은 수익률만을 목표로 계획되었던 동네에 하나의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의 목표였다.

**땅**

강남의 주요도로 중 하나인 봉은사로의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8M 도로가 북

서쪽으로 교차하는 코너 부지이다. 대지의 서쪽이 사선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형상도 이를 따라 직육면체가 아닌 볼륨을 가지게 된다. 남쪽과 동쪽은 이 지역의 대부분의 경우처럼 도로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벽돌마감의 다세대 주택이 자리 잡고 있으며, 이 계획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힘든 자기만족적인 형태와 프로그램을 가진다.

**배치와 프로그램**

봉은사로에서 사선으로 진행된 서쪽의 도로에서 약 3M정도를 후퇴시켜 길을 지나

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편히 쉬 쉴 수 있는 그리고 건물의 입면을 좀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. 또한 1층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고 그 바닥을 도로에서 약 1M정도까지 들어올려 외부 테라스를 계획하여 건물과 길의 상호 관계를 밀접하게 하였다.

2층에는 사무공간을 두고 그 상층부에는 다세대주택을 고려하였는데, 이 지역의 다른 다세대주택과는 다른 오피스텔 형식의 평면을 제공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좀 더 능



indigo 12th FL-100

indigo

544-1228

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. 2층부터의 진입은 북쪽도로로부터 이루어지며, 입구를 도로에 바로 노출시키지 않고 도로와 평행하게 그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간영역을 통한 프라이버시의 확보를 꾀하였다.

### 기능과 입면

평면을 단순하게 보면 중앙의 복도에 동쪽과 서쪽의 개실이 붙어 있는 형상이고, 복도의 끝에 계단실이 위치하는데 이 계단실은 전체 볼륨의 중심적 요소로 작용한다. 각 층의 복도 끝은 북쪽의 하늘로 열려 있으며 각 층을 모두 아우르는 좁은 수직 공간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어 입구에서 내부 공간의 수직성과 팽창의 느낌을 받게 하였다.

계단실의 외부는 큰 투명유리로 마감되어 자칫 어둡고 폐쇄된 계단실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려 하였고, 유리의 외부에 그물망을 덧대어 내부와 외부의 직접적인 연결이 아닌 좀 더 부드러운 연결을 이룩하였다.

정면이라 할 수 있는 서쪽 입면에서는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이 가지는 볼륨과 높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수직의 요소를 고려하였는데, 각 실의 실외기실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요소로서 적삼목을 약간의 각도를 주어 반복하여 세워 놓았다. 각층이 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면으로 생각하고 그 면을 기능과 구조에 따라 조작하는 방식을 가장 큰 입면구성의 방식으로 결정하고, 콘크리트 구조체 위에는 특수 마감된 금속재를 적용해 오후 햇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느낄 수 있다.

기존 건물과 인접해 있는 남쪽과 동쪽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미지를 강조하여 주변 건물에 순응하고자 하였고, 대신 각 실의 발코니를 마치 하나의 큰 면에서부터 잘려나간 부분이 단순하게 돌출된 형태로 계획하고 그 마감도 본래의 면과 동일한 것으로 하여 단순함 속의 변화를 표현하였다.

### 대나무와 입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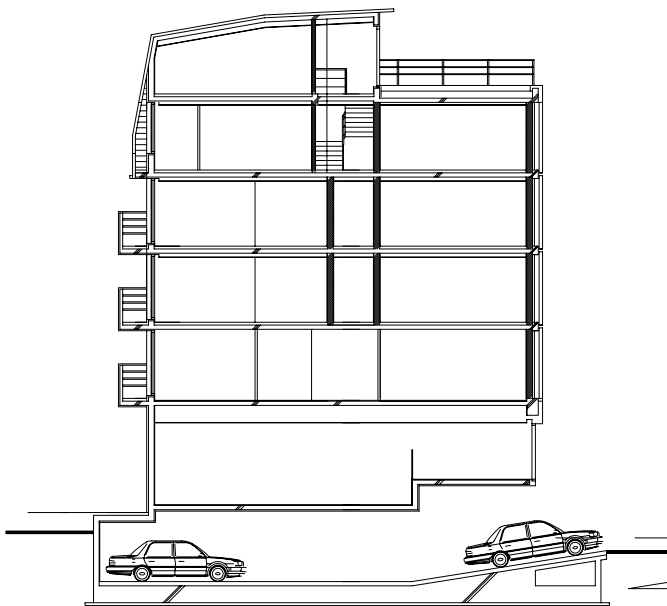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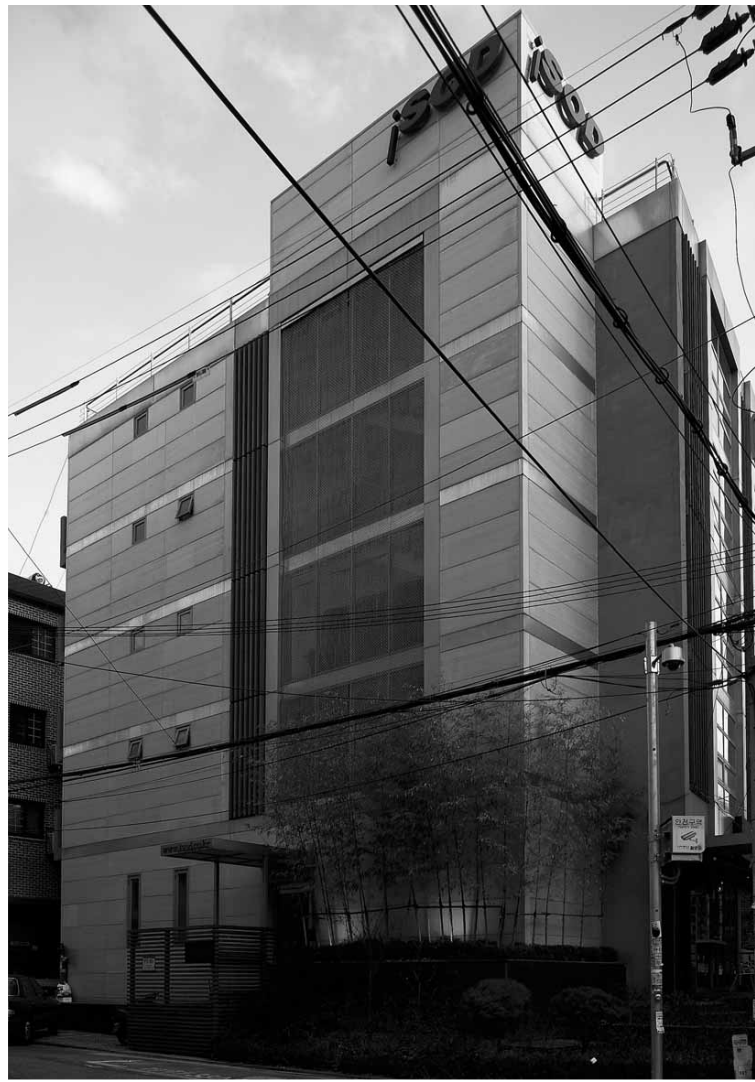
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사용자와 거리의 사람을 위한 고유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입면의 요소로 적용하려는 것이다. 남쪽은 각 층의 기능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순한 하나의 큰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여기에 그 스케일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높이를 감소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필요하여 약 7~8M정



도의 대나무를 선택하였다. 북쪽의 그늘막 앞에도 그 망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반투명 스크린의 역할로서 대나무가 적용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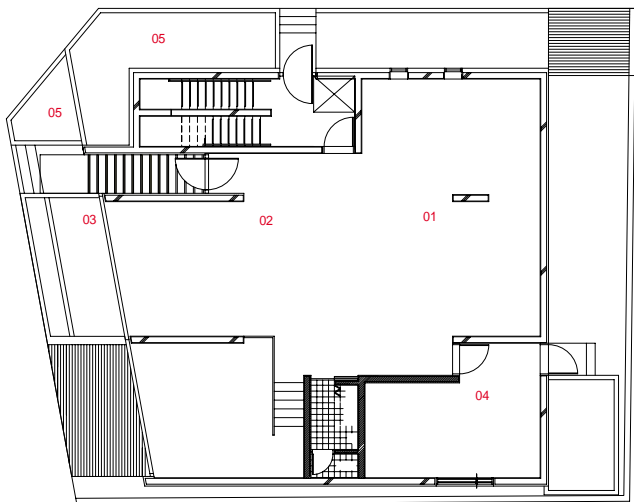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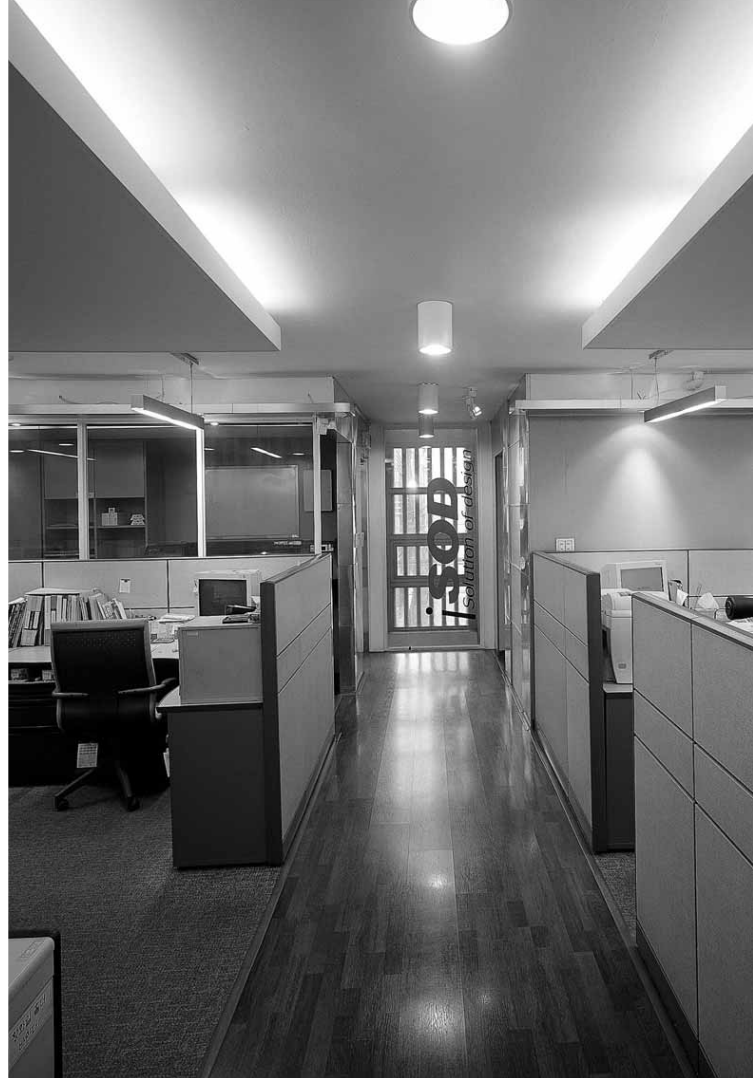
**뒷글**

작은 땅 위에 세워지는 집이지만 주거라는 일과 그 주거가 여럿 모여 있다는 점이 설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. 개인 공간, 공공 공간 그리고 그 가운데 공간의 제공과 이 공간들의 외피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 중에 자연스럽게 결정된 형태와 마감재의 사용으로 아주 단순한 형태와 작은 규모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생각이다. 계속해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자와 사용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그 평가를 기초로 더 나은 설계 작업이 이루어지길 고대한다. ㉮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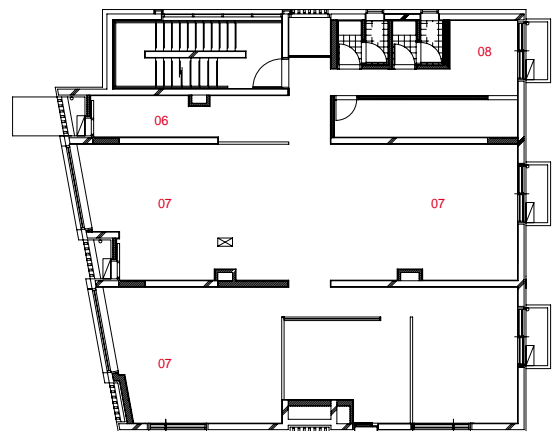


단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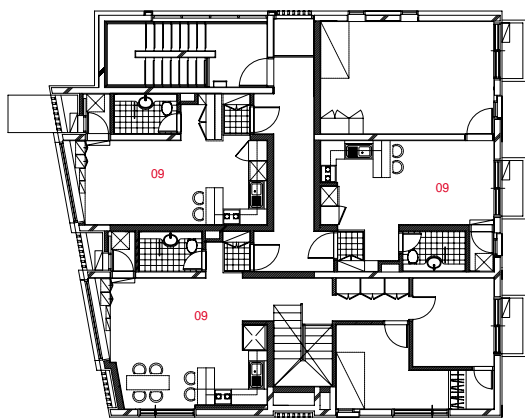




1층 평면도



2층 평면도



- 01. 일반음식점
- 02. Bar
- 03. Deck
- 04. 주방
- 05. 화단
- 06. 자료실
- 07. 설계실
- 08. 창고
- 09. 다세대주택

5층 평면도